

1사면초가의 도면

글 정지윤

처음에는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 적은 밖에 있다. 적어도 내가 가진 도면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 놈들은 나의 노래를 성 밖에서 소란스럽게 웅성대고 나는 그 노랫소리에 포위되어 웅크리고 있다. ²천하를 놈들에게 빼앗겼다는 소문이 노래와 함께 들리기 시작한다. 노래가 닿는 곳까지가 놈들의 천하라면 이미 성 안의 대부분을 내어준 셈이다. 적은 아직 밖에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막연한 존재며, 나도 그 속의 이름없는 분명한 한 사람이었다. 성 바깥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 거기에는 함께 부르는 같은 노래처럼 친밀감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동쪽의 성벽을 한 뼘 내 품으로 물린다. 서쪽의 벽도 같은 거리만큼 물린다. 첫 번째 후퇴선이다. 노랫소리를 쫓아내려는 듯 동서를 노려보는 사이, 놈들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타고 담쟁이처럼 번져온다. 밤사이 경계선을 수정해야 한다. 성벽이 좁아지는 만큼 축척의 단위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펜을 갖고 있지 않아 도면을 수정할 수 없기에 도면을 반으로 접어 조여오는 후퇴선을 표시한다. 동측과 서측이 맞닿는다. 한 번 더 접는다. 두번 더 접힌 종이는 더 이상 접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작아진다.

곧 날이 밝을 것이다. 낮게 깔린 구름이 예보되어 있다. 성벽은 부드러운 구름 속으로 안길테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성벽의 표면이 어두워진다. 나는 어느새 턱 밑까지 성큼 다가온 성벽에 손을 뻗어 올려보았다. 손가락 끝으로 벽의 표면을 두들겨보고 손바닥을 문질렀다. 내가 아직 놈들 중, 그러니까, 사람들 중 이름없는 한 놈이었을 때, 통과해본 적 있는 미끌거리고 기묘한 성벽의 느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돌 사이에 끼어 있던 먼지가 물을 먹고, 밤에는 보이지 않던 자국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오래된 충격의 흔적, 굽힌 자리, 무언가가 한동안 붙어 있다 떨어져 나간 자리. 턱 밑에서 바짝 가까운 각각의 흔적은 유물처럼 특별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만 같다. 사실은 별 의미 없으면서.

나는 아직 여기 포위되어 있고, 천하 중 얼마를 잃었는지 알 수 없다. 남은 부분이 매번 새로운 점령의 전체가 되어가고 있다. 낮게 깔린 구름은 그 모든 곳을 지나 이곳까지 왔을 것이다.

—

안토니오의 회화는 원형의 요소들과 어슴푸레 인식되는 환경들을 활용하는 데 기반을 둔다. 이러한 세미-환경들은 언제나 하나의 더 큰 암묵적인 몸체를 이루는 구조적 파편처럼 보인다. 원형의 모티브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진입점’이며, 우리가 바라 보고 있는 것이 흡수의 지점인지 방출의 지점인지, 그 어느 쪽 끝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 의미는 더욱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Birdshot* 를 제목 그대로 본다면, 작품은 발사된 각각의 산탄이 흩어져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 결과 화면 위에 산포된 점들의 배열은 일종의 분포도를 떠올리게 하며, 무엇보다 야간 도시 풍경의 불빛을 연상시킨다.

김솔이는 “의미는 제작자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믿음과 질문을 가지고, 간혹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그 물음 앞에 스스로를 기꺼이 시험에 들게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김솔이의 조각은 과거 작업에 남은 펠트를 사용해 다시 제작한 작업들이다. 김솔이의 질문 앞에서 재현은 원작의 복제가 아니라 제작 행위를 현재로 되돌리는 수행이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제작자와 의미 사이의 위계를 다시 묻는다.

¹ 사면초가 (四面楚歌): 초나라의 군대가 한나라 군대에 포위된 가운데,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이미 고향마저 적에게 넘어갔다고 여긴 항우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후 이 말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상황, 또는 궁지에 몰린 처지를 비유하는 성어로 쓰인다.

² 천하(天下): 문자 그대로는 ‘하늘 아래’를 뜻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땅과 백성,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질서와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천하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누구의 질서와 권력이 미치는 세계를 의미한다.

Blueprint of 'Simyeonchoga (四面楚歌)

Text. Jiyeon Chung

At first, we sang. The enemies are outside. At least, that is how it was marked on the blueprint I have with me now. They murmured noisily beyond the walls while singing my song, and I crouched, surrounded by the sound of it. Rumours began to spread alongside the song: ² tianxia (天下) had already been taken by them. If their dominion extended as far as the song could be heard, then most of the fortress had already been surrendered. The enemies are still outside! They were the vague presence we call people. And I, too, had once been one of them—a distinct yet nameless individual among the crowd. Beyond the walls, people accepted others and, in turn, were accepted themselves. There must be something like intimacy there, like voices joining together in the same song. I pull the eastern wall a hand's breadth closer to myself. I do the same with the western wall. This becomes my first line of retreat. While staring east and west, trying to drive away the song, their voices creep behind me like ivy climbing a wall. By morning, the boundary will need to be redrawn. As the fortress shrinks, the scale of the blueprint expands beyond control. Without a pen to revise it, I fold the drawing in half to mark the retreating line. East and west meet. I fold it again. Then once more. Folded upon itself, the paper becomes so small and dense that it can no longer be folded. Daybreak is near. Low clouds have been forecast. The fortress will sink into their softness, and as the humidity rises, the surface of its walls darkens. Without noticing, I reach toward the wall that has advanced beneath my chin. I tap its surface with my fingertips and rub it with my palm. I remember, with certainty, the strange smoothness of this wall from the time when I was still one of them—one of those people—when I had once passed through it myself. Dust lodged between the stones absorbs the moisture, and traces invisible at night begin to emerge one by one: marks left by old impacts, scratches, the places where something had clung for a long time before falling away. Each scar, now so close beneath my chin, seems to conceal some ancient secret, like an archaeological fragment. In truth, they probably mean nothing at all. I am still here, surrounded. I no longer know how much of tianxia (天下) has been lost. Whatever remains repeatedly becomes the entirety of the next occupation. The low clouds must have passed through all those places before arriving here.

¹ Simyeonchoga (四面楚歌): literally "Songs of Chu on All Sides," describes a state of complete encirclement in which the enemy's songs are heard from every direction.

² Tianxia (天下): literally "all under heaven," referring not simply to the world, but to the totality of a shared political and symbolic order.

Antonio's work relies on the utilization of circular elements along with other semi recognizable environments which seem always suggestive of being structural fragments of a larger tacit body. The circular shapes are points of entry quite literally and grow in ambiguity when we can't pinpoint which end is it that we're witnessing, a site of absorption or one of emanation. In Birdshot for example if we take the title at face value we see the work embodying each fired pellet , resulting in a scattered array of dots akin to those in a distribution graph of sorts or most pertinently to the lights in a nighttime cityscape.

Sollee's work, she approaches her practice with a conviction that is also a question: that meaning cannot exceed its maker. Whenever this question returns like a boomerang, she places herself back within its trajectory. The sculpture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are reconstructed from felt left over from earlier works. Here, reenactment is not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but an act that brings the process of making back into the present. Through this repetition, Sollee reconsiders the hierarchy between maker and meaning.